

폭염 날려버린 금메달 소나기

유도 90kg급 송대남
사격 25m 권총 김장미
펜싱 사브르 김지연



태극전사들의 골드러시가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시원한 소나기가 됐다.

한국 여자 사격의 셋별 김장미(20·부산시청)의 총성을 신호탄으로 태극전사들이 1일(현지시각) 2012 런던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관련기사 3·14·15면> 남자 유도의 베테랑 송대남이 허를 찌르는 안위축결기로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여자 펜싱의 김지연은 영화보다 더 극적인 뒤집기 쇼를 연출하며 금메달 릴레이를 이었다.

여자 25m 권총의 김장미는 신예 선수다운 감성장을 과시했다. 본선에서 591점의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한 김장미는 4시리즈로 치러지는 결선 3시리즈에서 '디펜딩 챔피언' 천인(중국)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마지막 시리즈에서 10점대 표적을 잇달아 명중시키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공기소총에서 우승한 여갑순 이후 20년 만에 나온 여자 사격 금메달이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밤을 시원하게 해준 골드러시의 주인공들. 좌로부터 유도의 송대남, 사격의 김장미, 펜싱의 김지연.

사격 금메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33세의 나이에 뒤늦게 올림픽 무대를 밟은 송대남(남양주 시청)이 유도 금메달 소식을 알렸다.

남자 90kg급 결승에 출전한 송대남은 연장 접전 끝에 아슬레이 곤살레스(쿠바)를 안위축결기로 무너트리며 정상을 밟았다. 전날 남자 81kg급의 김재범(마사회)에 이어 유도에서 나온 두 번째 금메달이다.



펜싱이 금빛 바통을 이어받았다. '숨은 진주' 김지연은 여자 사브르 준결승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 마릴리 자구니스(미국·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쳐 금메달을 예고했다. 2-8까지 뒤졌던 김지연은 연속 포인트 행진속에 15-13으로 강적을 꺾으며 잠을 잊은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김지연은 짜릿한 준결승의 분위기



를 살려 결승에서 소피아 벨리카야(러시아)를 15-9로 완파하고 한국의 사브르 종목 첫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했다. 남자 펜싱의 정진선도 예페 개인전 준결승에서 연장 승부 끝에 세스 켈시(미국)를 12-11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대표팀은 가봉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 서 0-0으로 비기며 조 2위(1승2무)로

8강에 진출했다. 1948년 런던,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 세 번째 8강 진출이다. 북한도 대회 4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여자 역도 69kg에 출전한 림정심(19)은 인상 115kg, 용상 146kg 합계 261kg을 들어올리며 북한의 4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알림



꿈을 펼쳐라 청소년 세상, 함께 만들자 신나는 학교

9월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일보보는 오는 9월 1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중·고교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끼와 재능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2012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청소년들의 밴드·댄스경연,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수기 UCC 공모전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지며 20's Choice의 인기 아이돌그룹 '걸스데이'와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 백청강, 각 대학 인기밴드그룹 등이 특별 공연합니다.

이번축제는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교실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전국 대학의 입학홍보관도 운영돼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선택에도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9월1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 장소: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 경연 모집부문: 밴드(락/포크), 댄스(비보잉&팝핀/걸스힙합), 풍물,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교사참여가능),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수기 UCC 공모전, 3on3 길거리농구
- 참가자격: 중·고교 재학생, 참가비 무료(입상팀·입상자 소정의 상장 및 장학금 수여)
- 참가문의: 062)220-0555
- 후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

光州日報社

새누리 '공천헌금' 파문

선관위 "3억원 수수"...검찰 수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에서 공천신청자로부터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공직 후보자추천위원과 전직 당대표 등을 검찰에 수사뢰했다고 2일 밝히면서 12월 대선을 앞둔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수사뢰 및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2일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4면>

선관위에 따르면 공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부산지역의 당시 공천신청자 현영희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3월말 홍준표 전 당대표에게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와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씨는 결국 새누리당 비례대표 23

번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현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 전 의원의 출구 전 대표, 홍 전 대표의 측근 조모씨를 수사뢰했다.

이에 대해 현 전 의원과 현 의원, 홍 전대표 측은 "혐의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진통일당 김광식 대표비서실장과 김영주 의원, 심상여 전 정책연구원장, 송찬호 조직국장 등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김 실장과 심 전 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조건으로 김 의원에게 50여만원의 차입금 제공을 권유·요구 또는 알선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전남대 교수들 "총장직선 교수" 김윤수 총장은 "직선폐지 추진"

전남대학교 평의위원회가 주도한 총장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에서 표결에 참가한 교수 70.1%가 직선제 존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면>

그러나 김윤수 총장은 대학의 재정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회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 대의·심의기구인 전남대 평의위원회(의장 김여근)가 주도해 지난 달 26일부터 2일까지 교수 1172명을 대상으로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모두 994명이 참가, 697명(70.1%)이 총장 직선제 유지에 찬

성했다. 반대는 297명(29.9%)이었다.

투표 결과는 "대학의 자율·독립성, 민주화의 상징인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전남대 분부추진 구성원의 총의를 받아들이며 현 총장 직선제를 규정하는 학칙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이 제도는 그대로 존치된다.

하지만 김윤수 총장은 교과부 재정 지원 중단 등 대학재정에 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직선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안공항 활성화 되면 新線 건설"

국토부 호남고속철 승정~목포 계획 변경

당분간 옛 철도 사용...완전개통 또 늦어져

호남고속철도 광주 승정~목포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광주일보 5월8일자 1면 참조> 하지만 무안공항 활성화와 이 구간 수요 등을 고려해 신선을 깔고, 그 전까지는 기존선을 활용하게 돼 광주승정~목포 완전 개통은 더욱 늦어지게 됐다. 또 이 구간은 기존선을 이용하

다 보니 이동 시간은 애초 정부안(13분)보다 19분 늦어졌다.

국토해양부는 2일 "관계기관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 계획 변경안을 3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광주 승정~목포 구간은 무안공항 경유 노선

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기존선(목포역 기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32분이 걸리고,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신설되면 16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호남고속철 서울(수서)~목포간 전체 소요시간도 당초 99분(목포입성리)에서 늘어나, 무안공항 우회노선 신설 전까지는 118분이 걸릴 전망이다. 총 사업비도 정부안인 직선노선 신설시 11조3382억원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변경안은 기존선을 활용해 8조7283억원으로 2조6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신설

(3조1400억원)하면 총 사업비는 11조8683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건설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 성숙시'라는 전제조건이 달아 호남고속철 광주승정~목포 노선의 2017년 개통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 원서접수 : 8월 20일 ~ 9월 11일
-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 원서접수 : 8월 6일 ~ 8월 20일

입학 문의 대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2012 CONCERT

아직도 못다한 노래...

노진

아직도 못다한 노래...

2012. 9. 22(토) 오후 3시,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광주일보, 광주MBC | 주관 | 문커뮤니케이션 | 제작 | 이나이스엔터테인먼트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 문의 | 220-0541 · 1600-4534

티켓가격 |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